

보성군, 전남도지사와 함께하는 군민과의 대화 성료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도민과의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현장과 화상을 통해 관내 기관,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김철우 군수는 환영사에서 "보성군의 발전이 곧 전남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보성형블루이코노미와 KTX-이음 도입을 전라남도과 보성군의 합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군수는 건의 사항을 통해 7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열선루 중건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15억 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는 보성군과 전라남도과 국가중요농·어업박람회를 신설해서 제1회 박람회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주암호와 연계

된 10만 평 규모의 생태공원을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연계할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건의 사항 중 열선루 사업은 15억 원의 도비 지원보다 더 충분한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박람회 개최는 내부 검토를, 주암호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은 전남도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연계해 보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현장 건의는 공공기관 보성 유치 지원, 문덕면 도로 개선,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 건 등이 있었다. 화상 질문으로는 미력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보수와 아열대 과수 유통망 확보 등이 있었다.

김 지사는 군민들의 건의에 전남도의 담당 국장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었으며 예산 증액, 조정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도민과의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보성군 제공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해남군은 봄을 맞아 흑석산 치유의 숲을 본격 운영한다.

흑석산 치유의 숲은 해남 계곡면 흑석산(해발 653m)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피톤치드가 풍부한 참나무 군락지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등을 갖춘 산림복합휴양 치유공간이다.

또한 치유센터와 치유정원, 무장애 테크로드 등이 조성돼 연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흑석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으로는 유아와 초등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학습스트레스 해소와 감수성 형성을 위한 숲 체험 활동을 비롯해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임신부 숲태고, 어르신 치매예방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방문 체험 안내는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061-530-5734~5738) 및 치유의 숲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윤보현 기자

장흥군, 지역 자매결연 통해 교류 확대

장흥군이 국내·외 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흥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8곳, 중국 해염현 등 3개국 8개 도시다.

군은 국제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객 유치 등을 목표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협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최근 국내 자매도시 신규 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장흥군이 먼저 움직였다.

군 관계자들은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를 방문해 주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 지역은 다양한 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교류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흥군 출

신 자치단체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교류가 정체된 서울시 등 3개 자매도시를 방문해 우호 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 문화교류 추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포함한 공동마케팅 전략 수립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

장흥군은 2023년 역사·문화·예술·르네상스 원년으로 삼고 관광객 500만 명 시대 개막을 예고 했다.

군은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만명 육성'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는 저출산, 인구 유출 등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백주연 기자

고흥, 교육발전기금 기탁 꾸준히 이어져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내 손으로 내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고흥군교육발전기금 기탁이 2023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고흥군교육발전기금은 회원 회비를 비롯해 출향향우, 지역 주민, 사업체, 기관·사회단체 등이 십시일반 성금을 기탁해 조성되고 있으며, 관

내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올해도 고흥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지역 사회의 동참이 활발하다.

지난 1월 (사)한국석면안전협회를 시작으로 도화베이스블파크 영농조합법인, 금산면 청년회, 녹동

신희, 흥양농협, 풍양농협 등 다수의 개인·기관·단체 등에서 기탁이 줄을 이으면서 3월 기준 누적 기부액은 4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기탁자들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이루고자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최종민 기자

진도,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진도군 보건소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신장·신경질환 등 합병증 사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합병증 발생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하고 5만원 상당의 쿠폰 발급 후 목포시의료원에 방문·검진하면 된다.

검사항목으로 심전도(고혈압), 신

경검사(당뇨병)와 공통검사로 안압,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초음파 등이다.

합병증 검사 결과에 따라 유소견자는 2차 검진 기관으로 연계하고 보건소 등록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하고 있다. 합병증 검사를 원하는 군민은 진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061-540-6922)에 문의하면 된다.

검사비 지원 사업은 진도군 보건소와 목포시의료원이 지난 2019년 협약 이후 중증 질환을 예방해 주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합병증 없는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심뇌혈관·신장·신경질환 등 합병증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평 기자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 '치유 미디어 아트' 눈길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가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치유'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건립됐다.

센터는 향기 치유 공간인 후각동, 해조류를 이용한 요리 공간인 미각동, 도자기를 빚는 촉각동,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시청각동 등 4개 동으로 구성됐다.

시청각동에서는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는데 명상을 알리는 심잉 불소리를 시작으로 신지 명사십리 밤바다, 완도 바닷속 풍경을 테마로 하는 CG와 완도 구계등 일몰, 청산 신희 해변, 상왕산, 금당 병풍바위 등 완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백나영 기자

